

북한 연극의 인물 전형 형상화*

—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2011)를 중심으로

Imagery of a typical character in North Korea's plays

: Focusing on the <I Will Recollect Today>(2011)

김미진(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교수)

차례

- | | |
|----------------------|------------------------|
| 1. 서론 | 3.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 전형 창조 - |
| 2. 연극의 현실 수용 - | ‘강산옥’의 형상 |
|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주인공처럼 | 4. 결론 |

1. 서론

북한은 김일성 사망 후 유신통치 기간과 고난의 행군 시기가 겹쳤던 1990년대 말을 보내고,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2000년대를 맞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혁명을 주창한다. 또한 1995년부터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선군(先軍)’의 정치담론을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투사시키며 강성대국 건설에 군과 인민들의 적극적인 혁명적 투쟁을 유도한다. ‘선군’이라는 정치 이념 아래 북한의 연극계는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경희극 작품들을 제작하고 평가하던 2000년대 초중반이 지나고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전의 작품을 재공연하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그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8067326).

성과를 발표하였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경희극 〈산울림〉과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이다. 경희극 〈산울림〉은 1961년 작품으로 2010년에 재창작, 공연되었으며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1997년에 초연된 작품을 2011년에 다시 공연하였다. 이 두 작품은 모두 국립연극단에서 재공연되었으며, 김일성상을 수여받으면서 명실상부 2010년대 초반 북한 연극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특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창작 방식을 이어 받아 북한의 전형적인 연극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또한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 공식적이지마지막으로 관람한 연극 작품이었으며, 후계자였던 김정은이 함께 동행한 사진이 보도되면서 북한 내에서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다.

박영정은 이 두 작품이 재공연된 것은 물론,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4~5회에 걸쳐 실황이 녹화방영 된 점을 주목하여 이 작품들이 시사하는 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위의 두 작품들은 전국 10개 도시 순회공연을 통해 20만 명이 넘는 집객 성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관객층을 확보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였고, 보다 높은 정치선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기능하였다고 설명하였다.¹⁾ 이 연구는 '고난의 행군'에 대한 '집단기억'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승리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고 내면화하는 기제로 활용했다고 보았다.

본고는 선군정치의 연극적 발현이었던 2000년대 초중반의 경희극 열풍을 지나 다시 정극을 통한 정치선전을 도모한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를 통해 당에서 요구하는 인물유형의 '전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북한

1)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의 조선중앙TV 편성표를 참고하여 총 69회의 연극실황 프로그램을 분류하였으며, 이 중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5회, 경희극 〈산울림〉은 4회씩 방영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이 두 작품은 공연시간이 두 시간 전후의 장편에 해당한다는 점, '김일성상 계관 작품'으로 북한 당국에 의해 높이 평가 받은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해당 작품이 공연된 의의를 포착하였다.: 박영정, 『역사의 호명과 집단기억의 재구성 : 북한 TV 방영 〈산울림〉과 〈오늘을 추억하리〉를 중심으로』, 남북문학예술연구회, 『3대 세습과 청년지도자의 발걸음: 김정은 시대의 북한 문학예술』, 도서출판 경진, 2014, 307쪽 참고.

문학에서 이르기를 ‘전형’은 “생활의 본질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 시대의 특징을 체현한 예술적형상”인데,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계급이나 계층의 본질적특성을 뚜렷이 구현하고 있는 인물형상”을 가리키는 개념이다.²⁾ 북한은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갖춘 인물을 문학예술 작품을 통해 구현하여 인민들을 선동한다. 이 작품이 공연된 2011년 당시 북한에서는 ‘〈오늘을 추억하리〉 주인공 따라배우기’ 열풍이 일었다. 이러한 열풍은 2012년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경제강국으로서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강령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조선예술』 2011년 11호와 12호에 연속해서 실린 희곡 『오늘을 추억하리』와 영상물,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작품평과 공연 보고를 한 『조선예술』과 『로동신문』의 기사를 기본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2. 연극의 현실 수용 -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주인공처럼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1997년에 국립연극단이 창작했으며 1998년에 무대에서 상연되었다. 그리고 2011년에 다시 국립연극단에 의해 공연되었고, 김일성상을 수여받아 ‘김일성상계관작품’이라는 위상을 얻었다. 2011년에 이 작품이 무대에 올려 질 당시의 매체들은 ‘새롭게 창작된’³⁾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재창작, 재공연 되었다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예술』 1998년 5호와 2003년 8호 그리고 『천리마』 1998년 11호에서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가 창작, 공연되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있다.⁴⁾

2) 사회과학원, 『문학대사전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9, 357쪽.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를 관람하시었다〉, 『로동신문』 2011년 7월 14일.

4) 윤찬희, 『(수기) 혁명연극의 영원한 조국으로』, 『조선예술』 1998년 5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59-61쪽.; 한동주, 『(연단) 90년대 극문학에서의 전형적성격탐구』, 『조선예술』 2003년 8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77-79쪽.; 본사기자,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천리마』 1998년 11호, 평양: 천리마사, 82-83쪽.

『조선예술』 1998년 5호에 실린 윤찬희의 글에서는 당시 창작과 공연되고 있는 작품 중 하나로 〈오늘을 추억하리〉를 언급하며 이 작품들이 북한의 혁명연극사의 대표작인 〈뢰성〉, 〈승리의 기치따라〉, 〈성황당〉과 같이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작품”⁵⁾으로 완성되어야 함을 당부하였다. 『조선예술』 2003년 8호에 실린 한동주의 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작품평이 기술되는데, “산해와 같은 우리 시대 일군의 전형적성격을 탐구함으로써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자가 된 90년대 인간들이 먼 후날 오늘을 행복하게, 긍지높이 추억할 수 있는 의의있는 작품”⁶⁾이라고 〈오늘을 추억하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때의 강산해가 가진 성격적 특징으로는 “당정책을 관철하는 길이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난관을 맞받아 기어이 당정책을 관철하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영웅성과 완강성, 희생성과 헌신성”⁷⁾으로 요약된다. 즉 이 작품은 주인공 ‘강산해’를 통해 1990년대 희곡 창작에 있어 인물 유형의 ‘전형’을 창조하고자 하였으며, ‘고난의 행군’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호명하여 강인한 의지, 극대화된 신념을 가진 영웅적인 인간으로 형상하려 했던 것이다. 이 작품이 초연 될 당시의 희곡이나 공연 상황을 현재로서는 접할 수 없지만, 당시 극에 대한 구체적인 줄거리를 『천리마』에 실린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글의 말미에서는 “오늘과 같이 어려운 때에 일군들이 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실감있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 이 작품이 주인공의 형상을 통해 당시를 살아가는 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하는 바람직한 인민상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천리마』와 『조선예술』에 실린 윤찬희, 한동주의 글 외에

5) 윤찬희, 앞의 글, 61쪽.

6) 한동주, 『(연단) 90년대 극문학에서의 전형적성격 탐구』, 『조선예술』 2003년 8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78쪽.

7) 위의 글.

도 국내 연구자를 통해서 이 작품이 재창작된 작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영정은 2012년 1월 20일자 《로동신문》을 통해 해당 작품이 10여 년 전에 창작되어 1998년 4월과 8월, 10월에 공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0년대에 다시 태어난 연극’이었다는 점을 들며, “고난의 행군시기를 반영한 시대적 배경은 좋으나 종자 해명과 생활적 소재의 탐구가 부족한 것으로 하여 연극은 점차 자기의 빛을 잃게 되었”다는 《로동신문》의 해설을 덧붙였다.⁸⁾ 전영선의 연구에서도 국립연극단의 〈오늘을 추억하리〉가 초연 당시 “연극의 내용이 너무나 리얼하여 상영되지 못하다가 2011년에 공연되어, 절찬을 받았다”라는 언급을 하였다.⁹⁾ 1998년이라는 시기는 북한 주민 전체가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 위기 속에서 고통받던 때였으며, 그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 때문에 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이 작품이 주인공 강산옥(초연 당시에는 ‘강산해’)의 인간 전형을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를 보다 더 생생하게 묘사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2011년이라는 시점은 우선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 종결을 선언한 1997년 이후부터 10년이 훌쩍 지난 시간인 만큼 어느 정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경제강국을 뜻하는 강성대국으로의 진입을 위해 인민을 독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은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공연에 대해 김정일의 창작 지도와 더불어 현지 시찰과도 다름없는 직접 관람 장면을 대대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인민들의 선전선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 재창조된 이 작품에 대해 『조선중앙년감』에서는 “선군시대의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기념비적 걸작”¹⁰⁾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이 작품은

8) 박영정, 앞의 글, 317쪽 참고.

9) 전영선, 『집단적 치유와 제의로서 북한 영화: 〈자강도 사람들〉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13, 222쪽 참고.

2011년 7월 평양 국립연극극장에서 공연되었으며 이후 8월부터는 함흥을 시작으로 강계, 원산 등을 순회하며 공연을 이어갔다. 특히 7월 국립연극극장에서 공연될 때는 김정일과 김정은이 함께 관람하는 장면과 배우들을 독려하는 사진이 실리는 등 《로동신문》에 공연과 관련된 기사가 대서특필 될 정도로 화제가 된 연극 작품이었다.

아래의 [그림 1]과 [그림 2]는 《로동신문》 2011년 7월 14일에 실린 사진들이다. 이날의 보도에서는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가 공연된 것을 처음으로 기사화했으며, 김정일이 그의 후계자 김정은과 동행하여 연극을 관람하고 배우와 창작가들을 독려하는 모습을 대거 방출했다.



[그림 1] 공연 관람을 위해 국립극장으로 입장하는 김정일과 김정은



[그림 2] 김정일, 김정은 부자와 연극 배우 및 관계자들과의 사진촬영. 김정일 바로 뒤에 서 있는 여성이 연극의 주인공 '강산옥' 역의 인민배우 백승란이다.

이러한 지도자의 정치적 행보는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를 통해 그의 통치행위를 이입시키려는 무언의 작동기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지도자가 보아 준 연극, 그 자체만으로도 이 연극은 대중을 선동할 수 있는 상징체가 되는 것이다.

『조선문학』에는 이 연극에 대한 감상이 담긴 시 한 편이 소개되었다.

10) 『조선중앙년감 201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12, 300쪽.

아, 참되게 살자 주인공처럼
래일을 위한 오늘을
후대들 두고두고 잊지 않게
오늘을 추억하리 오늘을 추억하리
가장 떼떈한 추억을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¹¹⁾

이 작품은 홍민식의 시 『인생과 래일』 중 일부이다. 먼 훗날에 지금의 시점을 추억해봤을 때 떼떈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추억할 수 있도록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주인공 강산옥을 닮아갈 것을 외쳐댄다. 문학작품에서 뿐만 아니라 작품이 공연되고 난 후, 현실에서도 주인공 강산옥처럼 살아 갈 것을 공식적으로 선동하는 움직임은 노동신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로동신문》에서는 ‘지상연단’을 통해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주인공들처럼 살자!’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각 지방 노동자들의 결의를 실었다.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불굴의 정신력의 창조자들답게’(강원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로력영웅 로길중, 《로동신문》 2011.09.03), ‘인민을 생각하면 할 일이 많다’(연산군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윤섭, 《로동신문》 2011.09.16), ‘오늘의 강산옥이 되리’(량강도 인민위원회 사무장 신송철, 《로동신문》 2011.10.06), ‘일군의 현신은 인민의 행복을 안아온다’(전천군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영관, 《로동신문》 2011.10.20) 등의 기사에서 연극의 주인공인 강산옥과 당일꾼들을 통해 만들어 낸 동시대의 인간 전형을 따라 배워 갈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주인공들처럼’이라는 적힌 속보판을 세워두고 노동자들의 토론 장면 등을 사진으로 찍어 함께 보도하였다(그림 3)).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주인공들처럼 자력갱생의 혁명

11) 홍민식, 『인생과 래일』, 『조선문학』 2011년 11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1, 25쪽.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적 양양을 일으킬 열의에 넘쳐있다’, ‘연극의 주인공들을 따라배워 신발생산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연극의 주인공들을 따라배워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등 생산현장에서 일꾼들의 노력을 요구하는 글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주인공들처럼 자력경쟁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적양양을 일으킬 열의에 넘쳐있다.

—전천착암기공장에서—

(그림 3) 《로동신문》 2011.09.03



(그림 4) 《로동신문》(2011.09.22)에 실린 안명옥의 사진

이런 흐름과 함께 2011년 9월 22일자 《로동신문》에는 주인공 강산옥의 실제 모델인 평성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안명옥을 취재한 기사가 실린다 ((그림 4)). 이 기사에서 안명옥을 취재한 기자 우정혁은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작가들이 작품의 소재와 원형을 취재하기 위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에 그녀를 찾아갔던 점을 밝히며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에서 안명옥은 “모든것이 어려웠고 부족했다. 하지만 신양군 일군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자체로 발전소도 건설하고 지방산업공장들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투쟁에 불사신처럼 일떠섰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또한 “연극의 주인공원형은 경애하는 장군님만 굳게 믿고 모진 시련을 꿋꿋이 이겨낸 훌륭한 우리 인민들”이라 비록 문학적 요소인 허구의 연극을 빌어, 실존인물과의 연계성을 통해 사실성을 확보하여

고난의 행군에 대한 ‘승리’의 기억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실존 인물인 안명옥의 일화는 고스란히 희곡에 투영되어 강산옥으로 태어났으며,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의 전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2011년에는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주인공 강산옥을 강조하며 그의 신념과 의지를 따라 배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급기야는 연극이라는 허구에 갇힌 인물이 아닌 안명옥이라고 하는 실존인물까지 등장시키며 연극과 주인공에 대한 사실성을 극대화하였다. 1997년과 1998년에 이 공연이 처음 창작되고 공연되었을 때와 2011년의 차이점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2011년 공연 당시 〈오늘을 추억하리〉는 연극이 상연되는 것과 동시에 문예잡지에는 물론 《로동신문》에 관련기사들이 실리면서 열풍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로동신문》에 실린 기사들은 모두 주인공 강산옥의 행동과 신념을 따라 배울 것을 강조하는 글로 채워졌으며 심지어 ‘안명옥’이라는 주인공 형상 모델까지 등장시킨 것이다.

공연 상연의 효과나 반향보다 ‘강산옥’이라고 특정 지어진 인물을 따라 배울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인민들의 모습 등을 《로동신문》을 통해 선전하면서 2011년 이후, 북한의 사회가 요구하는 인물의 전형을 시각화하고 구체화하고 있다.

3.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 전형 - ‘강산옥’의 형상

2011년 이 작품이 공연된 후에 『조선예술』에 실린 글에서는 “우리 조국 력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를 반영한 작품으로서 고난의 행군에 대한 추억은 슬픔의 추억이 아니라 신념과 의지의 추억”¹²⁾이라고 작품을 평하고 있다. 장명옥은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를 두고 ‘고

12) 김명진, 『제목은 극적흥미가 있게 달라』, 『조선예술』 2013년 3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3, 32쪽.

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발휘된 일군들의 혁명성, 숭고한 인생관에 대한 진실한 형상으로 하여 우리 시대 일군들의 생활과 투쟁의 훌륭한 교과서¹³⁾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이 작품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이겨 낸 노동자의 전형을 현재의 시점에서 필요한 새로운 인물 전형으로 투사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황당〉식 혁명연극에서는 인간문제와 인간전형에 대해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여야 혁명적인것’¹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혁명연극 〈성황당〉에서는 미신에서 벗어난 주체형 인간, 자신의 운명은 자신 스스로 개척하는 진리를 깨달은 인간, 근로인민으로서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준 인간 등을 ‘새 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이라고 설명했다.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역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처한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다가올 새 시대에 필요한 인물의 이상향을 그려보게 만들었다. 이 작품이 ‘거대한 사상정서적감화력을 가질수 있었던것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대한 깊이 있는 체험에 기초하여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형상을 진실하게 창조’¹⁵⁾한다고 말한 박일찬의 글이 이를 뒷받침 해 준다.

주인공 강산옥은 내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되지만 그것이 ‘오늘’을 떳떳하게 추억하게 되리라는 신념을 지닌 인물로 묘사된다. 또한 한 아이의 어머니이면서 군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강산옥은 인민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행군 당시의 고통을 고스란히 체현한 인물로 그려진다. 게다가 어린 딸마저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슬픔을 안게 되고, 헤어진 지 40여 년 만에 만난 남동생 최광천이 발전소 건설

13) 장명옥, 『(단평) 선군시대 일군혁명화의 훌륭한 교과서』, 『조선예술』 2011년 10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1, 49쪽.

14)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연극혁명의 빛나는 승리, 혁명연극 《성황당》에 대하여』, 『조선예술』 1979년 제1호, 평양: 문예종합출판사, 1979, 10쪽.

15) 박일찬, 『고난의 행군의 시대적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체험과 성격형상의 진실성』, 『조선예술』 2011년 10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1, 61쪽.

이 난관에 봉착하자 관광지로 바뀌서 건설하려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이게 되자 혈육의 정보다는 인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를 반동분자로 취급하며 개조시키기에 이른다.

최광천은 군이 살아갈 길이 반드시 발전소 건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는 뜻을 내비치며 고생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한다. 이 과정에서 최광천과 강산옥은 대립을 겪는다.

광천: 내 얼마전에 우리 도행정위원회 무역국장 동무한테서 의견을 받았는데 동무네만 있는 노다지가 있지 않소?

산옥: 노다지라니요?

광천: 라디오통전 말이요. 외국사람들은 라디오통전이라면 오금을 못 쓴다지 않소. 이 선양군이 못살긴 해두 산천경개야 얼마나 좋소. 게다가 라디오통전이 세개씩이나 있구... 어디 그뿐이요. 유명한 절간두... 그걸 포함해서 여기서 관광지를 꾸리면야...

산옥: (아연해하며) 관광지를요?

광천: 글썄, 나두 동무처럼 처음엔 무슨 소리 하는가 하구 무역국장동무의 의견을 일축해버렸는데 돌아앉아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거던. 어떤 나라라는 말이요. 땅덩어리는 조마구만 해도 국민소득은 대단하오. 관광업으로 그렇게 됐거던.

산옥: 남들이야 어떻게 하든 우리야 우리 식으로 살아갈 길을 찾아야지요.

광천: 음?

산옥: 그렇게 남의 돈주머니를 넘겨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그속으로 끌려들어갈수 있습니다.¹⁶⁾

강산옥은 ‘우리 식대로’를 외치며 자력으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한다. 반면 광천은 삶은 옥수수 한 줌 먹고도 등짐을 지며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16) 김흥기·서남준, 『(회곡) 오늘을 추억하리』, 『조선예술』 2011년 11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76쪽.

관광산업을 실시해 편하게 살아보자는 욕망을 보인다. 두 사람 모두 현재의 고난의 행군을 타개하고 강성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세운 것이지만 산옥은 자본주의적 시각을 보인 광천을 경계하며 '우리 식'을 강조하고, 광천은 철탑을 옮기는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하면 자신이 비판 받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산옥은 온전히 공적 욕망을 위해 투쟁하고 희생하는 전형적인 북한식 영웅의 모습이라면, 광천은 공적 욕망을 사칭한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 반동인물로 묘사된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보인 강산옥의 모습은 연극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이며 또한 강성대국 건설에 박차를 가할 시기에 보여주어야 할 북한의 인물 '전형'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강성대국 건설을 앞두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돈독히 하고 자본주의의 유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당의 의지가 강산옥과 최광천에게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1997년 초연 당시의 최광천은 발전소 건설에 있어 철탑을 옮기는 문제를 당에 직접 제의서를 올리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하다가 비판 받는 것으로 나온다.¹⁷⁾ 이로부터 십여 년이 훌쩍 지난 시점인 2011년의 공연에서는 최광천을 통해 적은 분량이지만 자본주의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그려내는 동시에 강산옥과 사상적 대립을 야기시켜 긍정적주인공 강산옥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단순히 시대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주인공이 아니라, 그의 신념과 의지를 통해 사회주의라는 북한의 이념과 사상을 관철시켜 이른바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는 북한의 미래를 건설하는데 유력한 본보기 인물로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강산옥은 혈육보다 자신이 호주로 있는 군 내의 군민들을 먼저 생각하

17) 《문학예술사건 DVD》(평양: 사회과학원, 2006)에서는 “도에 올라간 산옥은 광천이가 경애하는 장군님께 제의서를 올리는 방법으로 철탑문제를 해결하려는 청천벽력같은 현실에 직면한다. 너무도 억이 막혀 할 말을 찾지 못하던 산옥은 비로소 자기가 광천이의 누이였다는 것을 밝히면서 어떻게 되어 자기 어깨우의 짐을 감히 장군님 어깨우에 덧지우는 무엄한 행동을 스스로없이 할수 있게 되었는가. 《나는 살아있는 동생을 찾았지 죽은 동생을 찾지 않았다.》라고 절규한다.”라고 설명된다.(이 출처에서는 주인공 이름이 강산옥으로 표기되어 있음.)

고 이들의 생활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 작품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의 결정을 반드시 집행하고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도록 투쟁하는 모습을 강산옥을 통해서, 그리고 부정인물의 형상화를 통해서 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산옥: 동지들, 우리는 오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발전소건설의 완공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힘겨운 나날들이었어요, 하지만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적군인정신이 있어 흠짐을 지면서도 래일을 생각하고 굶어 쓰러지면서도 래일을 그리고 모진 마음속 고통을 겪으면서도 래일의 승리만을 위해 불사신처럼 일떠서 싸웠습니다.¹⁸⁾

이 작품에서 강산옥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내일의 승리, 행복을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발전소 건설을 위해 20kg짜리 시멘트가 든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오거나, 혼자 있는 딸에게 옥수수를 보내는 시일을 잊어버려 딸 송희가 산에서 나물을 캐서 먹다가 영양실조에 걸려 죽는 등 개인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당의 결정과 군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발전소건설사업에 매진한다. 이렇게 ‘우리 식’ 대로 곳곳하게 시련을 극복해 나간 강산옥의 형상을 통해 관객들(인민들)에게 다가올 ‘내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입시킨다.

김일성이 사망하자 ‘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을 아예 질식시켜 죽이려’¹⁹⁾ 했고,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공장들이 가동을 멈춘다던지 인민들의 식량이 떨어지는 등 고난의 행군의 시기가 도래하자,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강산옥의 노력이 그것을 말해준다. 군의 살림을 맡아

18) 김흥기·서남준, 『(회곡) 오늘을 추억하리』, 『조선예술』 2011년 12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80쪽.

19) 김흥기·서남준, 『(회곡) 오늘을 추억하리』, 『조선예술』 2011년 11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72쪽 참고.

보는 호주로서 강산옥은 자신의 가족보다 군민들의 살림을 먼저 돌보았으며 군민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 발전소 건설에 매진하며, 군민의 생활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하거나 자본주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동생 광천을 비판하는 등 고난의 행군이라는 힘든 시절을 타개할 수 있는 인간의 면모를 내포하였다. 이것은 공연이 상연된 다음 해인 2012년 강성대국의 원년을 앞두고 인민들의 노동력을 끌어올리고 당 정책 관철 정신을 고조시키기 위한 인간 전형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작품으로, 김일성 사망과 대홍수로 인해 이후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는 인민들의 생활상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강산옥의 딸인 ‘송희’와 발전소건설시공지도원 ‘오석태’이다. 극의 첫 장면부터 등장하는 송희는 사촌언니로부터 얼굴이 푸석하다는 걱정을 듣게 되고, 바빠 나가려다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송희는 엄마가 보내준 옥수수를 한 끼에 50g씩 먹으며 버텼지만 산옥이 발전소건설 일 때문에 열흘이 지나도록 옥수수를 보내주지 못하자 스스로 산에서 나물을 캐서 먹으며 살았다. 결국 송희는 산 속에서 나물을 캐다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고 되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엄마에게서 받은 쌀 한 줌을 석태에게 건네주고 사망한다.

굶주림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성인 남성에게도 보이는데 바로 오석태이다. 석태는 자신의 마른 몸 때문에 발전소 건설소 동무들이 영양실조환자로 걱정할까봐 일부러 복대를 착용하고 다녔지만, 실제로 영양실조로 인한 시신경이 위축되는 병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렇게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 강산옥은 “우리 군에 흔한 칠팔리로 국수”를 대용식품으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하고 극 후반부에 칠팔리로 만든 국수를 만드는데 성공하게 된다. 이 작품이 초연되었던 시기인 1998년은 고난의 행군의 종식을 선언한 시점이겠지만, 1990년대를 관통하고 있었던 경제난과 식량난을 관통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현재진행형으로 봐야

한다. 『천리마』에 실린 평론에서도 “오늘과 같이 어려운 때에 일군들이 당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 “난관을 뚫고나가고 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할것이다.”²⁰⁾와 같이 말하며 이 연극이 ‘현재’의 고난의 행군에 직면한 인민들에게 바람직한 인간 전형을 환기시켜 주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와 같이 영화 〈자강도 사람들〉에서도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름한 것은 ‘1차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기억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명명으로, 1990년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형서사로 작동한다²¹⁾는 것과 유사한 의미로 해석된다.

고난의 행군이란 표현은 “이미 극복했던 역사”로 규정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²²⁾하면서 인민들에게 승리의 기억을 이식한다. 또한 북한에서 말하는 고난의 행군 종식으로부터 10여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는 하나의 상징체로 남아 ‘고난의 행군’에 대한 기억이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처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함께 일종의 동기부여로 작동한다.

이 동기부여는 강성대국 건설을 목전에 둔 북한 사회를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2011년 후반기 《로동신문》에 일곱 차례 등장한 지상연단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주인공들처럼 살자’가 그것을 대변해 주며, 특히 11월과 12월에 발표된 기사 중 강성대국 건설을 앞둔 노동자들과 군인들의 결의에서 그것이 잘 드러난다.

은 사회에 혁명적열정과 비약의 폭풍이 휘몰아치게 하는 김일성상계관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최전방인 경공업전선

20) 본사기자,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천리마』 1998년 11호, 평양: 천리마사, 1998, 83쪽 참고.

21) 전영선·권정기, 앞의 글, 214쪽 참고.

22) 위의 글, 215쪽.

을 책임진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당과 조국, 인민앞에 지닌 시대적사명과 임무를 심장깊이 자각하게 하고있다.

- 《로동신문》 2011년 11월 11일 4면.

김일성상계관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새로운 평양속도가 창조되는 만수대지구건설장에 달려나온 우리모두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투쟁의 교본이다. 모든것이 부족한 고난의 행군시기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리며 제힘으로 발전소건설을 진행하는 연극의 주인공들처럼 우리는 이번엔 당이 맡겨준 초고층살림집건설을 빠른 기일내에 완공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에 대한 실효모임마다에서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하자고 불같은 맹세를 다진 건설자들이 발휘하는 정신력은 참으로 컸다.

- 《로동신문》 2011년 12월 5일 4면.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2011년 공연은 향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인민 투쟁 모습의 ‘교본’이 될 만큼 상징적인 것이며, 투쟁에 있어 용기와 의지를 북돋아주는 역할로 활용되고 있다. 1997년의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가 고난의 행군 극복이라는 당면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인민의 신념과 의지, 투쟁을 담았다면 2011년에 공연된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고난의 행군을 극복한 기억을 재생산 해 내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동력인 인민들의 활약을 다시 한 번 주도하고 있다. 즉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주체가 곧 인민이며 인민들의 활약을 통해 강성대국이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고양하며, 투쟁하는 긍정적인 인물의 아이콘을 등장시켜 실제 인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본고는 선군정치의 연극적 발현이었던 2000년대 초중반의 경희극 열풍

을 지나 다시 정극을 통한 정치선전을 도모한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를 통해 당에서 요구하는 인물유형의 ‘전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극이 초연될 당시 『조선예술』에 실린 평론에서 주인공 강산해를 두고 “당정책을 관철하는 길이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난관을 맞받아 기어이 당정책을 관철하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영웅성과 완강성, 희생성과 헌신성”가진 인물로 설명했다. 주인공의 성격적 특질은 2011년 판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에서도 변함없이 수용되어 내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되지만 그것이 ‘오늘’을 떳떳하게 추억하게 되리라는 신념을 지닌 인물로 묘사된다. 또한 한 아이의 어머니이면서 군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강산옥은 인민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행군 당시의 고통을 고스란히 체현한 인물로 그려진다. 이것은 최광천이라는 인물과의 대비를 통해 그것을 더욱 확고하게 드러냈다. 산옥은 온전히 공적 욕망을 위해 투쟁하고 희생하는 전형적인 북한식 영웅의 모습이라면, 광천은 공적 욕망을 사칭한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 반동인물로 묘사된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보인 강산옥의 모습은 연극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이며 또한 강성대국 건설에 박차를 가할 시기에 보여주어야 할 북한의 인물 ‘전형’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다. 즉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역시 고난의 행군시기에 처한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다가올 새 시대에 필요한 인물의 이상향을 그려보게 만들었다.

과거의 작품을 재공연하고 각종 매체들에 대대적으로 공연의 현재적 의미를 반추하는 것은 모두 강성대국 건설을 눈앞에 둔 북한이 어버이처럼 숭배했던 수령이 사망하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고달픈 세월을 보낸 인민들의 상처를 문화예술의 측면에서 치유하거나 반면교사 삼아 강성대국의 길로 나아가길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를 통해서도 주로 긍정적 주인공의 인물 전형을 새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물 유형을 간접적으로 표명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DVD, 평양: 국립연극단, 2011.

김흥기·서남준, 『(회곡) 오늘을 추억하리』, 『조선예술』 2011년 11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1.

김흥기·서남준, 『(회곡) 오늘을 추억하리』, 『조선예술』 2011년 12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1.

김명진, 『제목에 극적흥미가 있게 달자』, 『조선예술』 2013년 3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3.

박영정, 『역사의 호명과 집단기억의 재구성 : 북한 TV 방영 〈산울림〉과 〈오늘을 추억하리〉를 중심으로』, 남북문학예술연구회, 『3대 세습과 청년지도자의 발걸음: 김정은 시대의 북한 문학예술』, 도서출판 경진, 2014.

박일찬, 『고난의 행군의 시대적현실에 대한 깊이있는 체험과 성격형상의 진실성』, 『조선예술』 2011년 10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1.

본사기자,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천리마』 1998년 11호, 평양: 천리마사, 1998. 사회과학원, 『문학대사전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9.

윤찬희, 『(수기) 혁명연극의 영원한 조국으로』, 『조선예술』 1998년 5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1998.

장명옥, 『(단평) 선군시대 일군혁명의 훌륭한 교과서』, 『조선예술』 2011년 10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1.

전영선, 『집단적 치유와 제의로서 북한 영화: 〈자강도 사람들〉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13.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연극혁명의 빛나는 승리, 혁명연극 《성황당》에 대하여』, 『조선예술』 1979년 제1호, 평양: 문예종합출판사, 1979.

한동주, 『(연단) 90년대 극문학에서의 전형적성격담구』, 『조선예술』 2003년 8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3.

홍민식, 『인생과 래일』, 『조선문학』 2011년 11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1.

《문학예술사전 DVD》, 평양: 사회과학원, 200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를 관람하시였다〉, 《로동신문》 2011년 7월 14일.

『조선중앙년감 201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12.

Abstract

Imagery of a typical character in North Korea's plays

: Focusing on the <I Will Recollect Today>(2011)

Kim, Mijin

In North Korea's theatrical world, entering the second half of 2000s past the early and middle 2000s, when evaluation was made over light comedy works produced in 4.25 Cinema Studio of Art Film for North Korean People's Army, works prior to those periods were performed again and advertised extensively, and its fulfillment was announced. Examples of the very typical works derived from such attempts are a light comedy <The Rumbling of a Mountain> and a play <I Will Recollect Today>. The latter was produced as a form of North Korea's typical drama, succeeding to the creation ways of Seonghwangdang-styled revolutionary plays. Kim, Jung-il formally watched this play for the last time before he died, and as pictures of him and his son and successor, Kim, Jung-eun who had accompanied him to watch this drama were reported, it caused a huge sensation in North Korea.

In this article, through <I Will Recollect Today>, a play which aimed for political propaganda again as a legitimate drama after the fever of a light drama in the early and middle 2000s — the theatrical manifestation of “military first” politics, a study was made on the ‘archetype’ of types of characters which the Party calls for. When this play was

premiered, in a criticism of 『Joseon Art』, the main character named Kang, San-hae, was explained as “a figure who had an indomitable revolutionary spirit, the nature of a hero and obstinacy, and a committed spirit of self-sacrifice.” In this play, firmly convinced that the accomplishment of the Party's policies guaranteed the protection of socialism, he was portrayed to fulfill policies of the Party at any cost despite overwhelming obstacles. Features in the main character's personality were constantly adopted even in a play produced in 2011, <I Will Recollect Today>; the main character was described as a figure who was convinced that though today he had to pour everything he had into tomorrow, his devotion would make 'today' proudly memorable. On the other hand, Kang, San-ok, who both was a mother of a child and a chairperson in a Board of Military Administration and Economy, was portrayed as a figure who realistically embodied the affliction during Arduous March (North Korea famine), from which the people were suffering. The contrast of Kang, San-ok against a figure named Choi, Kwang-cheon revealed opposing images of the two characters more effectively. San-ok was the typical character of North Korea-styled hero who fought and self-sacrificed for the sake of public desire in its entirety, while Kwang-cheon was depicted as an antagonist who pursued his private desire by impersonating public desire. Consequently, the image of Kang, San-ok, who had a firm conviction in spite of her economic difficulty, is both a subject embracing the whole play and North Korea's ideal ‘archetype,’ who should play a key part in the juncture when an impetus should be given to the construction of a strong and prosperous country. That is, by showing a typical figure who is faced with Arduous March, the play <I Will Recollect Today> also suggested an ideal image of a figure who is indispensable for a new era to come.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9호

주제어: 북한 연극(North Korea's play), 〈오늘을 추억하리〉(〈I Will Recollect Today〉),
고난의 행군(Arduous March), 전형(Archetype), 인물(character)

논문 접수일 2015. 07. 07. | 논문 심사일 2015. 07. 21. | 게재 확정일 2015. 08. 11.